

“국민만 밥이지”... ‘새우 등 터지는 현장’ 새벽 빅5 응급실

“한국, 日과 함께 병상 많은 나라... 그런데 빅5는 부족”
 “지역 병원들은 되레 병상 비어 있어... 의료 초토화”
 尹 “지방 거점 국립대 병원들 빅5 수준 되도록 지원”

지난 22일 새벽, 40대 초반의 남성 김모씨가 서울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응급실)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푹 숙인 채 출입구 주위를 맴돌았다.

“오후 2시에 왔어요. 수술이 언제 끝난다 말씀도 따로 없어서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김씨가 휴대전화를 켜니 ‘오전 12시28분’이 적혀 있었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체감 온도는 2.8도. 검은 코트를 입은 김씨는 전날(21일)부터 이 시간까지 약 8시간30분을 밖에서 꼼짝 없이 기다렸다.

응급실 안에 수술 현황이 뜨지 않았다고 한 김씨는 “저 말고도 수술 못 받거나 순서도 모르고 대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며 “(의료진이) 언제 수술 끝난다, 이런 말씀도 따로 없었다”고 했다.

전공의 이탈 등의 여파로 김씨와 같이 야

간·새벽 시간대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빅5) 응급실 앞에서 장시간 기다리는 이들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응급의료포털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0시 기준 서울대병원에는 일반응급실병상 26개가 전부 채워졌고 7명이 추가로 대기하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 특유의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에다 전공의 이탈로 일순까지 부족해진 탓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대병원은 전체 1603명 중 전공의가 740명(46.2%)다. 다른 빅5병원과 마찬가지로, 전공의 이탈로 ‘직격타’를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의료계 측은 이마저도 환자 수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아산병원 앞 편의점에서 5년 간 일해왔다는 직원은 “환자 수는 오히려 지금 더 적어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환자들이 빅5 응급실로 몰려들고 병상도 부족해 현장은 ‘초비상’이었다.

맹장이 터졌다는 헝가리 출신 케이시(36)씨는 오전 7시30분에 와서 다음 날 오전 1시에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었다.

남편이 다쳐서 왔다는 50대 후반 박모씨도 장시간 대기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았다. 박씨는 “보호자 한 명만 들어갈 수 있고 대기 장소는 알아서 하라고 했다”며 “추운 날씨에 대기실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진료로 인해 3~4시간 계속 기다려야 하는 건 알지만 전광판이라도 수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으면 좋겠다”며 “무한정 5시간이고 6시간이고 무조건 기다리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나”고 했다.

박씨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의사단체나 의사협회나 정부나 똑같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만 밥이지”라고 했다. 또 의사 수 감소로 간호사 무급휴가 등 비상체제에 돌입한 상황에 대해선 “왜 애매한 사람의 새우 등 터져야 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빅5로 몰리는 현 시스템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을 부인하는 이들은 없다.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래부터 대학 빅5 병원에는 병상이 부족했다. 거기에 전공의 파업 때문에 그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재미있는 통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병상이 일본과 함께 제일 많은 나라이다. 주요 국가 중 의사 숫자가 부족한 나라인데 병상 수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톱”이라며 “그렇게 병상 수는 제일 많은데 왜 빅5 병원에는 병상이 부족할까. 빅5로 환자들이 다 몰려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 병원들은 병상의 대부분이 비어 있다. 비어 있거나 병상이 한 3분의2쯤 아니면 절반 차 있다”며 “지역 의료는 지금 초토화 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기자가 취재를 나간 22일에도 노원구에 사는데 인근 대학병원에 가지 않고 송파구에 있는 서울아산병원까지 왔다고 한 환자가 있었다.

이 교수는 “지금 이 불균형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라며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지금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도 안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각 거점 국립대학교 병원들을 빅5 병원 수준만큼 되도록 끌어올

려야 한다. 그러면 대전 환자가 충남대 병원에 가지 굳이 서울까지 귀찮게 안 갈 것”이라며 “지방 국립대 병원들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늘어난 의대 정원 2000명을 거점 국립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지방)에 중점 배정했다며 이들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수도권 빅5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2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 2000명을 경기·인천 대학들에 361명(18%), 나머지 1639명(82%)을 모두 지방에 배분했다. 서울 지역 의대는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않기로 했다.

특히 지방 거점 국립대인 충북대, 경상국립대, 경북대, 충남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는 총 정원이 모두 200명으로 맞춰졌다. 인구가 적은 지역의 강원대는 총 정원이 49명에서 132명, 제주대는 40명에서 100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서선욱 기자



‘필수의료 위기가 왜 생겼을까요?’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의대정원 증원 저지 내용을 담은 포스터가 붙어있다.

‘의대생 집단 휴학 신청’ 646명 대거 ‘반려’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신청 600여건이 반려됐다. ‘유료’ 휴학 신청도 누적 8000명대로 줄었다.

27일 교육부는 전날(26일)까지 의대생들이 낸 학칙상 유효한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8967건이라고 밝혔다.

전날 하루 동안 대학 6개교에서 382명이 휴학계를 추가로 접수했지만, 대학 1개교에서 646명의 신청을 무더기 반려 조치했다. 이에 따라 누적 휴학 신청건수는 지난 25일 집계치(9231건)와 비교해 264건 감소했다.

교육부는 휴학 신청을 무더기 반려한 대학이 어딘지 묻는 질문에 “비공개”라고만 답했다.

교육부는 “휴학 반려 누적 건수는 집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교육부의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전날 반려 건수(1개교 646건)는 지난날 26일(1개교 201건)과 지난날 27일(2개교 170건)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유효한 휴학 신청 규모는 의대 재학생 대비 47.7%로 다시 전일 대비 1.4%포인트(p) 감소했다.

보호자 동의, 학장 연서명 등 학칙에 정해진 형식적 요건을 갖춘 휴학 신청만 집계한 것으로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의대생 규모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휴학이 허가된 사례는 누적 167건이다. 전날 하루 3개교에서 5명의 휴학 신청을 허가하는 데 그쳤다. 다만 ‘동맹휴학’을 이유로 적어낸 휴학계는 지난달부터 전날까지 단 한 건도 허가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전날 기준으로 수업거부가 확인된 의대는 40개교 중 8개교(20.0%)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9개교와 견줘 1개교 줄었다. 나머지 의대도 학사일정 연기나 휴강 등으로 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가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학교 측에 휴학 신청 승인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전날부터 수업 복귀를 원하는 의대생들을 돕기 위해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수권 기자

영화 ‘파묘’에 나온 미국병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네

영화 ‘상류사회’ ‘공작’ 등 10여편에 촬영장소 지원

원 도서관을 잇는 지하 2층 복도를 극중 미국 병원 세트로 꾸몄다. 영화 도입부에서 배우 김고은과 이도현이 목숨이 위태로운 아기를 만나러 미국 병원을 찾는 장면으로 연출됐다.

‘파묘’는 전통적인 풍수지리와 무속신앙을 엮은 오컬트 미스터리물이다. 풍수사와 장의사·무속인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담은 작품이다.

ACC는 ‘파묘’ 외에도 2017년 SBS 예능물 ‘백종원의 푸드트럭’, 영화 ‘상류사회’ ‘공작’ 등 10여편에 촬영장소를 지원한 바 있다.

ACC는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이다. 또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예술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코리아 유니크 메뉴’에 3차례 연속 선정되며 지역 명소로 각광 받고 있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ACC 내 이색 공간을 지속 발굴하는 등 공간 활성화 마케팅을 통해 시민 모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1000만명 이상이 본 영화 ‘파묘’의 일부를 촬영한 것이 알려지면서 건축공간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27일 ACC에 따르면, ‘파묘’ 제작진은 2022년 2월 ACC 문화청조원 전시관과 문화정보

이슬비 기자

‘미국 영주권 사기’ 제니퍼 정,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미국 영주권·유학 알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포 사업가인 이른바 ‘제니퍼 정’과 그 여동생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27일 302호 범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교포 제니퍼 정(51·여·구속)과 그 여동생 정모(44)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검사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보이고, 동종 전과 처벌에도 수사기관 출석 조사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제니퍼 정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동생 정씨에게도 사기 피해액과 여러 차례 수사기관 출석에 불응 사실 등을 감안해 징역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니퍼 정은 지난 2017년부터 2년여 동안 전문직 종사자 등 4명으로부터 투자 이민 알선·해의 교란학생 참여 등을 빌미로 투자금 4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동생 정씨도 언니와 함께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6억8000여만 원을 빼돌리고, 홀로 벌인 사기로 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니퍼 정은 수사 과정에서 ‘미국 의료 제조업체에 지분 매입 형태로 투자하면 ‘투자 이민’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자녀의 영주권 취

득도 가능하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국 의대 출신 지역대학 교원 교수와 미국 의료업체 한국총판 대표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광주시와의 지역 설비 투자 협의 과정에 동석하게 하거나, 현지 공장 견학도 할 수 있도록 주선·안내했다.

또 지연·학원을 매개로 각종 인맥을 과시하거나 확산에 찬 언행 등으로 피해자들을 교묘히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상당수는 자녀 입시를 앞둔 학부모였으며 “투자 이민 영주권을 취득하면 미국대학 진학, 취업·졸업 후 비자 문제에서도 혜택이 크다”는 자매의 말에 속아 넘어갔다. 그러나 수사기관 사실 조차 결과 제니퍼 정은 해당 기업과 무관했다.

앞서 자매 측 법률대리인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부인했다. 고의가 아니었고, 영주권 발급 등 절차가 잘못됐을 뿐이며 투자금 반환 약속을 이행 중이었다는 주장이 었다.

최후 변론에서 제니퍼정의 법률대리인은 “영주권이 나오지 않아 이런 상황이 이르렀다. 자료 제출은 부족했지만 증인 등으로 미뤄 영주권 취득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뉴시스